

서양음악도입기 여성선교사의 교육활동: 이화여전 음악과의 설립(1925)을 중심으로

허 지 연

1. 들어가며: 미션스쿨이 갖는 이중의 정체성
2. 1920년대 한국의 '전문학교'
3. 이화여전 음악과의 설립: WFMS의 물적·인적 투자
4. 전문학교 개편 이후 이화여전의 현황과 '음악과' 졸업생의 진로
5. 나가며

개 요

미국인 여성선교사들은 서양음악도입기에 음악교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미감리부인선교회(WFMS) 소속의 독신여성선교사들은 이화학당을 중심으로 음악교육을 실시하면서 교회와 미션스쿨을 위한 음악가를 배출하였다. 이들의 교육은 1925년 한국 최초의 음악고등교육기관인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설립을 계기로 질적·양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화여전 음악과의 설립을 선교기관의 경영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이화학당 대학과에서 이화여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1920년대의 전문학교 현황과 관계 법령을 살펴보고, 전문학교 인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화 측의 준비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전문학교 개편 이후 나타난 위상의 변화와 음악과 졸업생들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선교기관이자 교육기관이라는 이중의 정체성을 갖는 미션스쿨의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성공적인 선교기관의 운영을 위한 미국 내 선교회와 한국 거주 선교사들의 현실적인 노력을 추적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주제어: 근대음악교육, 여성선교사, 이화여전, 이화학당, 미션스쿨

1. 들어가며: 미션스쿨이 갖는 이중의 정체성

미국인 여성선교사들은 서양음악도입기에 음악교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음악 전문가가 크게 부족하였던 당시 상황에서, 미국에서 음악학교를 졸업한 소수의 여성선교사들은 한국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음악인력이었다. 이런 상황은 구미와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한국인 음악가가 등장하는 1920년대 말 이후에는 조금씩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이들 여성들은 미션스쿨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인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 중에는 연희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한 베커 부인(Mrs. Becker)¹⁾이나 부츠 부인(Mrs. Florence Boots)²⁾과 같이 선교사부인(missionary wife)으로 한국에 들어온 사례도 있었지만, 미감리부인선교회(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이하 WFMS) 소속 독신여성선교사로 입국한 경우가 다수였다. 이들 독신여성선교사들은 이화학당과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선교사들이 운영한 미션스쿨은 선교기관이자 교육기관이라는 이중의 정체성을 갖는다. 선교사들의 교육은 한국인들에게 근대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를 계몽하고 문명화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화와 선교사업을 위한 인력의 공급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식민지 시기 유일한 음악 고등교육기관인 이화여자전문학교(이하 이화여전) ‘음악과’를 선교기관이라는 정체성에 초점을 맞

-
- 1) 북감리회 소속 베커(Arthur L. Becker, 1879-1978, 한국체류: 1903-48) 선교사의 부인이다. 처음에는 숭실에서 가르치다가, 베커 선교사가 연희로 옮긴 이후 연희전문학교의 음악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간헐적으로 이화여전 음악과에서도 가르쳤다.
- 2) 1906년 비버(Beaver)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24-30년까지 이화에 재직하면서 바이올린과 오르간을 가르쳤다. 북장로회 소속 부츠(John T. Boots) 선교사의 부인이다. 존 부츠는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에서 치과교수로 재직하였다.

추어 조명하고자 한다.³⁾ 특히 이화학당 대학과가 이화여전으로 전환하는 1925년을 기점으로 전후 몇 년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전문학교 음악과로의 전환은 이화 음악교육의 수준과 규모 면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된 사건이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경비가 소요된 투자였기 때문에 선교기관의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화여전 음악과가 출발하는 1920년대의 전문학교 현황과 관계 법령을 고찰하고, 전문학교 인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화 측의 준비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전문학교 개편 이후 보이는 위상의 변화와 음악과 졸업생들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2. 1920년대 한국의 ‘전문학교’

식민지 시기 한국의 고등교육은 경성제국대학과 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이화학당 대학과의 전문학교로의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19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전문학교 현황과 전문학교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

이화여전이 인가를 취득한 직후인 1925년 5월의 전문학교 현황을 보면, 관립전문학교로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의 5개교가 있었고, 사립전문학교로는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이화여자전

3) 이화여전 음악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일차적으로 음악교육의 내용과 그것의 사회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은하, “이화학당과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중심으로 본 초기 한국 여성작곡가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43 (2009); 이진원, “일제강점기 이화전문학교의 전통음악 교육에 관한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44 (2010); 채현경, “누구의 목소리인가: 서구식 음악교육과 여성 의식의 변화,” 『음악과 문화』 29 (2013); 최승현, “이화음악 1920년대-1930년대의 음악교육,” 『음악연구』 15/1 (1997).

문학교, 연희전문학교의 4개교가 있었다. 사립전문학교 중 보성전문학교를 제외한 3개교는 미션스쿨이었다.

전문학교의 전공은 관립전문학교나 세브란스의전처럼 법학, 의학, 공업 등 하나의 분야에 특화된 경우가 주를 이루었지만, 보성이나 이화, 연희전문처럼 둘 이상의 전공을 설치한 학교도 있었다. 이들의 세부 전공을 보면, 보성전문은 법과와 상과, 이화여전은 문과와 음악과, 연희전문은 문과, 상과, 수물과(數物科), 신학과를 두었다.⁴⁾

다음으로 관립전문학교와 사립전문학교의 직원수와 학생수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⁵⁾

[표 1] 1925년 5월말, 전문학교 현황

종별	학교명	직원수				학생수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합계	일본인	조선인	합계
관립	경성법학전문학교	11	0	0	11	35	119	154
	경성의학전문학교	56	2	0	58	219	174	393
	경성고등공업학교	47	2	0	49	80	48	128
	수원고등농림학교	24	1	0	25	121	66	187
	경성고등상업학교	37	1	3	41	221	32	253
사립	세브란스연합의전	6	6	13	25	0	69	69
	보성전문학교	8	15	0	23	0	339	339
	이화여자전문학교	2	10	12	24	7	62	69
	연희전문학교	3	14	7	24	0	144	144

관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대부분이 일본인이고 학생 역시 법학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일본인이 더 많이 재학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경성

4) 전문학교의 전공과 교과과정은 정재철, “일제하의 고등교육,” 『한국교육문제연구』 5 (1989)를 참고하였다.

5) 朝鮮總督府學務局, 『朝鮮教育要覽』 (1926), 117-8.

고등상업학교의 경우는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학생의 7배 가까이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조선인 교원이 일본인 교원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학생은 이화여전에 7명의 일본인 학생이 다닌 것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조선인이었다. 즉 사립전문학교에서는 일본인 교원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외국인(다수가 미국인)과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사립전문학교 중 3곳이 미션스쿨이었음을 고려하면, 식민지 시기 한국에 허용된 제한적인 고등교육 기회 중에서 선교사들의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 전문학교(專門學校, Senmon Gakkō)는 메이지시대 초기에 설립된 소규모 사설 학교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일본 사회가 근대화되고 교육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몇 차례 바뀌다가, 1903년 “전문학교령”을 통해 “고등한 학술 기예를 교수하는 학교”로 정립되었다. 여기에서 전문학교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의 지위에는 못 미치지만, 중등교육을 마친 후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문학교가, 일본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인 제국대학과 차별화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보편화된 것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의 일이다. 전쟁 이후 일본사회에서는 공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상승하였으며, 국민들의 교육의식이 고양되었다. 그 결과 고등교육기관의 수요가 늘어났으며, 이에 대응하여 대학에 비해 설립이 용이하였던 관공사립 전문학교가 다수 개설되었다. “전문학교령”이 발포되기 직전인 1902년 당시 일본의 전문학교 현황을 보면, 관립전문학교 8개교, 공립전문학교 4개교, 사립전문학교 48개교가 관계 법령이 부재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⁶⁾ 이에 문부성은 1903년 3월 27일 칙령 제61호로 “전문

6) 明倉英三郎, 『日本教育史』(東京: 青木書店, 1974), 135. 이이아마 다케시, “명치기 일본의 전문학교에 관한 연구(I):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7 (1999), 112에서 재인용.

학교령”을 공포하여, 전문학교를 “고등한 학술 기예를 교수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전문학교의 입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또는 수학연한 4년 이상의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⁷⁾로 정하였으며,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전문학교령은 이후 1945년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수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전문학교에 대한 상위법령으로 유지되었다. 도쿄음악학교를 비롯한 예능계 고등교육기관이 전문학교에 해당하였고,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계 고등교육기관의 대다수가 전문학교의 지위로 존재하였다.⁸⁾ 1947년까지 일제의 전문학교 중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자전문학교의 현황을 보면, 공립여자전문학교가 28개교, 사립여자전문학교가 91개교 존재하였다. 이 중에는 한국의 이화여자전문학교, 숙명여자전문학교(1939년 설립), 중앙여자전문학교(1945년 설립)의 3개교가 포함되어 있었다.⁹⁾ 여기에서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일제의 전문학교에 포함되는 이유는, 이화여전이 1903년 발표된 일본의 “전문학교령”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문학교는 일차적으로 “전문학교령”의 제한을 받았지만, 세무사항은 총독부가 정한 하위 법령에 의해 규정되었다. 총독부가 전문학교 관련 법령을 처음 정한 것은 1915년, “전문학교규칙”¹⁰⁾을 통해서이다. 여기에는 학교 인가 및 폐지 절차, 학칙에 포함될 사항들, 입학 및 퇴학, 징계 관련 조항, 학교에 비치할 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었다. 교과목과 관련해서는 “전문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 전문에 관한 사항 및 체조로 하고 그 과정 및 매주 교수시수는 별표에 의한다”고

7) 일본 학제에서는 남·녀 중등교육기관을 각각 중학교와 고등여학교로 불렀다.

8) 일본의 전문학교 관련 내용은 이이야마 다케시, “명치기 일본의 전문학교에 관한 연구(I):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7 (1999)을 참고하였다.

9) “旧制女子専門學校,” <http://ja.wikipedia.org> (검색일: 2015.02.28).

10) “전문학교규칙,” 조선총독부령 제26호, 1915.04.01.

정하였으며,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은 1학급 1인 이상 전임자를 두어야 한다”는 짧은 내용이 전부였다.

“전문학교규칙”은 제2차 조선교육령¹¹⁾이 나오는 1922년에 폐지되고, “공립사립전문학교규정”¹²⁾으로 대체되었다. 1922년의 규정은 1915년의 규칙에 비해 보다 정교하게 전문학교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문화정치기의 교육이 표방한 ‘내지 연장주의’가 있었다.

문화정치기에 발표된 새로운 조선교육령은 식민본국의 교육체제와 식민지의 체제가 하나로 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이 일본의 소학교에 맞추어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일본의 중학교와 동일한 5년으로 연장되었다. 1923년부터는 “조선교육령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의 생도·아동 및 졸업자의 타학교 입학·전학에 관한 규정”¹³⁾을 통해 한국 내의 일본인 학교와 한국인 학교 사이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학교 사이에 상호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더 나아가 1923년 발표된 문부성고시 제34호는 “조선교육령에 의한 중학교·고등보통학교·사범학교·전문학교 졸업자는 문관임용령 제6조 1호에 의거하여 판임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고 규정하였다.¹⁴⁾ 이러한 정책의 실시는 식민지 교육현실의 개선으로 읽힐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부정적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다. 한국의 학교가 일본의 학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의 수준을 높일 것이 요구되었고, 이는 곧 사립학교의 재정적 부담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22년 새로 발표된 “공립사립전문학교규정”은 입학자격이

11) “조선교육령,” 칙령 제19호, 1922.02.04.

12) “공립사립전문학교규정,” 조선총독부령 제21호, 1922.03.07.

13) 문부성령 제1호, 1923.01.26.

14) 강명숙, “일제시대 학교제도의 체계화: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2/1 (2010), 19.

나 교원자격, 학교건물 및 설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항목에서 1915년의 규칙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였다. 새로 추가된 항목을 보면, 먼저 교지(校地)는 “학교의 규모에 적합한 면적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도덕상 및 위생상 해가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4조)고 정하였으며, 교사(校舍)에 대해서도 “교실, 사무실, 기타 실험실, 실습실, 연구실, 도서실, 기계실, 표본실, 약품실, 제련실 등을 구비해야한다”(5조)고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전문학교 교원에 대한 규정을 보면 “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졸업자, 대학에서의 시험을 합격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관립학교 졸업자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조선총독이 지정한 자, 조선총독이 인가한 자”(8조)로 정하였다. 1925년 이루어진 이화여전의 인가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가난한 식민지의 미션스쿨이 식민본국의 학교와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정규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연히 인적·물적 투자가 동반되어야 했으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 과정을 완수한 후 앨리스 아펜젤러 교장(Alice R. Appenzeller, 1885-1950)은 전문학교 설립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당당히 밝혔다.

우리의 교육은 도쿄기독교연합여자칼리지(Tokyo Union Christian College for Woman)와 같은 위상을 확보하였다. 교과과정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졸업생들은 일본 내의 정규학교 졸업생들과 같은 자격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제 사람들은 [이화라는] 이름에서 소녀들의 작은 모임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70명의 학생과 10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기관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¹⁵⁾

아펜젤러 교장의 지적대로, 전문학교로의 전환은 ‘조선’의 사립각종 학교가 일제의 정규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하는 과정이었다.

15) Alice R. Appenzeller, “Changes at Ewha Hakdang, 1925,”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25), 45-46.

3. 이화여전 음악과의 설립: WFMS의 물질·인적 투자

“공립사립전문학교규정”에 따르면 전문학교 인가를 위한 핵심적인 요건은 적절한 교육공간과 자격을 갖춘 교원의 확보였다. 이제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WFMS와 이화학당 측의 준비 과정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음악관의 건축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교원 충원을 위한 졸업생의 미국 유학에 대해 다루겠다.

1) 음악관의 건축

이화학당이 전문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1923년에 발행된 『KWC 보고서』¹⁶⁾에는 건축과 관련하여 아래의 보고가 실려 있다.

새로 마련된 아름다운 가사수업을 위한 실습실과 실험실이 흥미를 자극한다. 음악관이 완성되어, 피아노와 오르간 연습실을 한 곳으로 모은 덕분에 신경이 쉴 수 있게 되었다. 그곳은 영광스러운 악기연습 소리로 소란스럽지만, 이 사회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음악교사를 배출하는 터전이 될 것이다. 대학 및 대학예과, 유치원 사범과 학생들을 수용할 프라이홀의 봉헌식이 올 가을에 열릴 예정이다.¹⁷⁾ 작년 10월에 감동적인 정초식이 거행되었는데, 봉헌식은 더욱 더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것이다.

프라이홀은 다른 교단의 선교회에 보내는, ‘여성의 고등교육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초대의 메시지를 상징한다. 이화 칼리지는 올해 들어 다른 교단으로부터,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16) 원제는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이지만, 간략하게 『KWC 보고서』로 표기하였다.

17) 프라이홀의 봉헌식은 1923년 10월 16일에 열렸다. 최숙경, 『프라이: 한국 여성 고등교육의 개척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3), 129.

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선교회도 교단 소속 소녀들을 위한 고등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으며, 그들이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으려하는 여정에서 우리 이화가 앞서 나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¹⁸⁾

위의 인용문에는 1)가사수업을 위한 실습실과 실험실, 2)음악관, 3)프라이홀의 이름이 보인다. 이 중 음악관과 프라이홀은 전문학교 인가를 위해 신축한 건물이다.

새로운 건물의 설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는 미국 선교회 측의 예산 증액이었다. 이화학당의 초기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을 가장 괴롭힌 문제가 바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먹이고 재울 공간의 부족이었다. 특히 1910년을 전후해서는 거의 해마다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다는 이화 선교사들의 탄원이 『KWC 보고서』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그만큼 건물의 신축이 선교회 입장에서 큰 투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WFMS 연감』¹⁹⁾의 통계 중 1920년에서 1926년까지 WFMS에서 한국 지부에 지출한 경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화여전 인가를 위한 건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920년대 초부터 인가를 위한 절차가 종료되는 1925년 사이에 부동산 관련 지출이 급증함을 확인할 수 있다. 1920년에 4,725달러였던 지출이 1921년에는 10배 정도 늘어나 41,545달러가 되었다. 이는 다음해인 1922년에는 63,711달러까지 증가하며, 꾸준히 높은 금액을 유지하다 1926년에 급락하여 2,696달러로 낮아진다[표 2]. 물론 여기 제시된 예산은 한국 내 WFMS 소속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8)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23), 64.

19) 원제는 *Year Book of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이지만, 간략하게 『WFMS 연감』로 표기하였다. 이 책은 미국의 WFMS에서 발행한 보고서로, 1년 동안의 세계 선교지부의 활동과 사업현황, 경비 지출 등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한국에서 출판된 『KWC 보고서』와는 달리, 재정적인 통계를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전액이 이화학당에 배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액이 전문학교 인가를 준비하는 이화학당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23년 『WFMS 연감』에 기재된 부동산 지출 상세내역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²⁰⁾ 총 지출액 66,068달러 중 이화학당 프라이홀 기숙사에 27,328달러, 손탁호텔 부지에 11,999달러를 지출하였으니, 전체 경비의 60% 정도를 이화학당에 투입한 셈이다. 손탁호텔은 이화학당과 맞닿아있던 오래된 건물로 호텔이 문을 닫은 후 이화에서 기숙사 등으로 활용해왔다. 선교회에서는 이 부지를 구입하여 호텔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프라이홀을 세웠다.

(표 2) WFMS의 한국 관련 지출 (1920-1926)

(단위: 달러)

	1920 ²¹⁾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경상비 지출	95,271	118,441	138,866	151,699	145,541	134,673	137,575
부동산 지출	4,725	41,545	63,711	33,676	35,961	43,397	2,696
총 지출	99,996	159,987	202,577	185,375	181,503	178,070	140,271

전문학교를 위해 건축한 두 건물 중 음악관은 전문학교 전환을 기점으로 새로 개설될 ‘음악과’를 위한 전용 공간이었다[사진 1]²²⁾. 이화학당은 개교 이후 꾸준히 합창교육과 오르간·피아노의 개인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1910년 대학과를 개설한 이후에는 음악전문 선교사를 영입하여 음악교육에 특화된 학교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음악관이 없을 뿐 아니라, 교실과 기숙사

20) *Year Book of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23), 154.

21) 『WFMS 연감』(1920-1930)의 지출통계(summary of disbursements)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22) Photo of the GCAH, folder 2597-4-5:13.

공간조차 부족하였기 때문에 오르간과 피아노가 강당이나 강의실, 기숙사 등에 흩어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와 학생들이 하루 종일 악기연습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불평 아닌 불평이 보고서에 등장한 적도 있었다.²³⁾

새로 오픈한 음악관에는 총 16개의 연습실과 합창연습실이 갖추어져 있었다. 악기는 5대의 연습용 피아노와 8대의 오르간을 보유하였으며, 2대의 피아노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²⁴⁾ 1917년 당시 이화가 보유한 오르간이 총 5대인데 이 중 하나만 연습 전용이고 나머지는 강의실에 배치되어 있어 수업시간을 제외한 자투리 시간에만 연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진술과 비교하면,²⁵⁾ 전문학교 인가를 통해 이화의 음악교육이 양적으로 얼마나 충실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 1932년, 음악관 전경 (GCAH 소장)



23)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18), 34.

24)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24), 32.

25)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17), 22-23.

다음으로 프라이홀은 선교사들의 표현을 빌면 ‘칼리지 전용 건물’로, 전문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습공간 겸 생활공간으로 설계되었다. 1910년 이화학당에 대학과를 개설한 프라이(Lulu Frey, 1868-1921) 당장을 기념한 프라이홀은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하였듯이, 근대 한국의 여성고등교육을 상징하는 건물이었다. 이화의 여성선교사들이 직접 설계하였으며,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10개의 교실, 3개의 실험실, 도서실, 교사숙소 등을 갖추었다.²⁶⁾

2) 졸업생의 미국 유학

이화여전 음악과 개설 이전, 이화학당 대학과의 음악교육은 한 명의 음악전공 선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음악과가 독립적인 ‘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입학 정원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의 교원이 확보되어야 했다. 실제로 음악과가 설립될 당시 교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음악가는 매리 영과 플로렌스 부츠, 이은라와 김애식의 4명이었다.²⁷⁾

이 중 이은라와 김애식은 이화학당 졸업생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에 이미 일본 내 WFMS 대학인 갓스이여학교(活水女學校)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중등과정의 음악교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서는 음악과의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 “전문학교규정”이 요구하는 대학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게 하였다. 미션스쿨의 이념에 합당한 음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자격을 갖춘 교원을 찾는 것보다 이미 능력을 인정받은 내부인력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화학당 대학과에서 가르친 선교사 음악가들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은라와 김애식의 미국 유학에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겠다.

26) 최숙경, 『프라이: 한국 여성 고등교육의 개척자』, 128-129.

27) 정충량, 『이화80년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67), 166.

이화학당은 1910년 대학과를 개설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수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였다. 1911년 발행된 『KWC 보고서』에 “우리는 올해 안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 선교회 소속의] 음악, 미술, 체육교사를 영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학교 측은 특히 예체능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를 요구한 것 같다.²⁸⁾

1912년 한국에 온 그레이스 하몬(Grace Harmon, 1889-1985)은 이화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교사 음악가’였다. 하몬은 일리노이 주의 맥켄드리 칼리지를 졸업하였으며, 시카고 트레이닝 스쿨에서 수학하였다.²⁹⁾ 음악공부와 관련해서는 맥켄드리 연감에 “post-graduate work in piano”라는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³⁰⁾ 피아노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28년 감리교 신자인 개척자들에 의해 설립된 맥켄드리 칼리지는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이며, 미감리교회와 연결된 학교이다. 이 학교는 미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감리교회 감독인 윌리엄 맥켄드리(Bishop William McKendree)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다.³¹⁾ 한편 시카고 트레이닝 스쿨은 시카고 소재의 선교사 양성 기관으로 감리교회와 밀접한 관계였다. 1885년 루시 마이어(Lucy R. Meyer)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미전역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규모의 기관으로 성장하였다.³²⁾ 졸업생 중 다수가 WFMS 소속 독신선교사로 해외에 진출하였다.

28)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11), 12-13.

29) E-mail from Frances Bristol, Reference Archivist, GCAH, 2015.02.13.

30) “McKendree College Yearbook,” http://www.e-yearbook.com/yearbooks/McKendree_University_McKendreean_Yearbook/1928/Page_600.html. 검색일: 2015.04.24. 연감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였는가는 기록되어있지 않다.

31) “McKendree University,” <http://www.mckendree.edu>, 검색일: 2015.04.24.

32) “Chicago Training School for Home and Foreign Missions,” http://en.wikipedia.org/wiki/Chicago_Training_School_for_Home_and_Foreign_Missions, 검색일: 2015.04.24.

하몬 선교사가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함으로써 다시 공석이 된 음악교사 자리에는 롤라 우드(Lola Wood, 1881-1955)가 영입되었다. 롤라 우드는 시카고 트레이닝 스쿨을 졸업하였으며(1912), 맥켄드리 아카데미(칼리지)에서 음악을 전공하였다.³³⁾

흥미로운 점은 하몬 선교사와 우드 선교사가 동일한 기관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는 점이다. 여성선교사 지망생 중에는 중서부에서 성장하여 그 지역의 교회 관련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롤라 우드가 1919년 미국으로 돌아간 후, 후임으로 매리 영이 오게 된다. 매리 영은 1920년 1월 한국에 도착하여 1940년 11월 타의에 의해 이화를 떠날 때까지 20여 년 동안 이화의 음악교육을 지휘하였다.³⁴⁾ 앞의 두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중서부의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였다.

[표 3] 이화학당 대학과에서 가르친 WFMS 소속 선교사 음악가

이름	생몰년도	재직기간	학력
그레이스 하몬	1889-1985	1912-1915	McKendree College. Chicago Training School.
롤라 우드	1881-1955	1915-1919	Chicago Training School 졸업 (1912). McKendree Academy.
매리 영	1880- ?	1920-1940	Baker Univ. Diploma in Music (1907). Millikin Univ. 졸업 (1915).

다음으로 이은라와 김애식의 유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의 유학과 관련된 자료는 아쉽게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입수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통해 이들의 흔적을 드러내고자 한다.

33) "Form1," Documents of the GCAH.

34) 매리 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허지연, "이화여자전문학교 선교사 음악교사 연구: 연합감리회아카이브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음.악.학』 25를 참고할 것.

이은라(Laura Ye, 1889-1929)는 6살에 이화학당에 들어와서 1929년 사망할 때까지 전 생애를 이화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살았다. 그녀의 삶이 곧 이화학당 초창기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졸업생이다.

그녀는 이화학당에서 공부한 후, 16세에 페인(Josephine Paine, 1869-?) 당장의 후원으로 갓스이여학교로 유학을 떠나 1911년 고등과를 졸업하였다.³⁵⁾ 초창기의 이화학당은 졸업생을 갓스이여학교로 보내 고등과정을 이수하게 만든 후 교원으로 활용하였는데, 이은라의 경우도 그중 하나였다. 귀국 이후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프라이 당장의 지원을 받아 다시 갓스이 대학부로 유학을 떠나, 1917년 본과를 제3회로 마치고 돌아왔다. 2차 유학은 이화학당이 고등보통학교로의 개편인가를 신청한 1918년 직전이라는 점에서, 인가를 위한 유자격 교원의 충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귀국 후 이은라는 고등보통학교와 대학예과에서 음악, 영어, 성경을 가르쳤다.³⁶⁾

이후 이은라는 음악과 개설을 앞두고 다시 유학길에 오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미국 보스턴의 뉴잉글랜드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게 된다. 그녀는 뉴잉글랜드음악원에서 모두 9학기 동안 피아노, 솔페지, 화성, 피아노 초견연주, 성악 수업을 수강하였다. 이를 학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21. 1학기: 피아노 (1920년 가을학기)
- 1921. 2학기: 피아노, 솔페지, 화성
- 1922. 1학기: 피아노, 솔페지, 화성
- 1922. 2학기: 피아노, 솔페지, 화성

35) *Ewha Weekly News Sheet - Extra*, 1929.11.21. 이화역사관 문서, II-B-1-1-4.

36) 『이화학당 일람 (1920)』. 최숙경, 『프라이: 한국 여성 고등교육의 개척자』, 165에서 재인용.

1923. 1학기: 피아노, 솔페지, 화성
 1923. 2학기: 피아노, 화성, 피아노 초견연주
 1924. 1학기: 피아노
 1925. 1학기: 성악
 1925. 2학기: 성악³⁷⁾

1924년부터는 수강과목이 하나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이은라가 보스턴 대학으로 학교를 옮겼기 때문이다. 유학 중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이은라는 “피아노 연습을 계속하기에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음악 디플로마를 취득하는 것을 포기하였다.³⁸⁾ 이후 보스턴 대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전공하였으며, 1925년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³⁹⁾

뉴잉글랜드음악원이 발행하는 *The Conservatory Bulletin* 에는 보스턴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이은라에 대한 소식이 실려 있다. 안식년 휴가 동안 이은라와 함께 뉴잉글랜드음악원에서 레슨을 받은 매리 영 선교사의 글이다.

이은라는 교회에서 노래하기를 즐기며,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를 좋아한다. 음악과에서 가르치는 동시에, 프라이어홀의 [사감으로] 60명의 소녀들을 엄마처럼 돌보고 있다. 주일학교에서 100명의 어린 이들을 감독하고 있으며, 성가대를 지휘하는 한편, 매주 2회 교인

37) E-mail from Maryalice Perrin-Mohr, Spaulding Library, New England Conservatory, 2013.06.27.

38) “Dear Friends, July 6, 1926,”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2597-4-5:14.

39) E-mail from Katherine Kominis, Howard Gottlieb Archival Research Center, 2015.02.04. 이은라에 대한 모든 문서에는 그녀가 보스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보스턴 대학의 아카이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1925년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을 뿐이다. 1926년 작성된 아펜젤러 교장의 편지에도 그녀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학교 측에서 고의로 이은라의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들에게 새로운 노래를 가르친다. 또한 이화여전 글리클럽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⁴⁰⁾

이처럼 미션스쿨 이화의 교원은 학교와 교회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력으로 활동하였다. 수업과 학생관리, 성가대 지휘, 주일학교 음악감독, 교회 독창자 등 이은라의 역할은 끝이 없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유학을 다녀온 김애식(Alice Kim, 1890-1950)은 이화학당 대학과 1회 졸업생 3명 중 하나이다. 사각모를 쓴 그녀의 졸업사진은 WFMS의 한국 활동을 홍보하는 팸플릿에 자주 등장하였다. 대학과를 마친 김애식은 갓스이로 유학을 떠나 1919년 전문부 음악과를 제5회로 졸업하였다. 이후 다시 미국 유학길에 올라 오리건 주의 엘리슨화이트음악원(Ellison-White Conservatory)에서 디플로마를 취득하였다.

김애식의 유학은 오리건 출신 선교사였던 마리 처치(Marie E. Church, 1885-1972)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엘리슨화이트의 데이비드 캠벨(David Campbell) 음악과장이 김애식을 수업료를 받지 않고 지도하였다.⁴¹⁾ 또한 처치 선교사는 김애식의 미국 유학길에 보호자로 동행하였으며, 유학 기간 동안 홈스테이 할 가정을 함께 방문하였다. 오리건의 매체는 김애식의 유학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어제 김양은 서울에서 미국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미 미국과 미국인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을 좋아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유창한 영어로 대답하였다. 그녀는 미국이 풍요의 나라인 점에 끌렸다고 한다.⁴²⁾

40) "The Conservatory in Korea," *The Conservatory Bulletin*, Nov. 1927, 2.

41) "Flag Brought From Korea Under Jap Rule Goes Back," *The Sunday Oregonian*, 1949.12.04.

42) "Girl Comes from Korea," *Morning Oregonian*, 1921.10.02.

어린 나이에 미션스쿨에 입학하여 여성선교사들의 교육을 받은 김애식에
게, 미국은 부유하고 좋은 나라이며 미국인은 호감 가는 상대였던 것이다.

김애식은 유학 기간 중 오리건 주의 감리교회에서 연설하였고, 시카고,
디트로이트, 뉴욕, 보스턴, 워싱턴, 필라델피아 등지의 WFMS 행사에서
이화학당과 한국의 여성고등교육을 지원해줄 것을 호소하였다.⁴³⁾ 그녀
는 선교사업의 성공적인 열매로서 학교의 홍보대사 역할을 한 것이다.

4. 전문학교 개편 이후 이화여전의 현황과 ‘음악과’ 졸업생의 진로

1925년 이화여자전문학교는 문과와 음악과 두 전공으로 문을 열었는
데, 이후 이화의 교육은 질적·양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겪었다.
먼저 이화학당에서 발행한 『1920년 일람』⁴⁴⁾과 총독부 학무국에서 발행
한 『朝鮮教育要覽』⁴⁵⁾의 통계를 비교함으로써, 교원과 학생 수의 변화
를 살펴보겠다.

[표 4] 1920년과 1925년의 교원수와 학생수 통계

		1920년	1925년
학교명		이화학당 대학과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원수	미국인	8	12
	한국인	2	10
	일본인	0	2
	계	10	24
학생수		10	69 (일본인 7명 포함)

43) 그녀의 행보는 *Morning Oregonian*, *The Sunday Oregonian* 등 오리건의 지역 매체
에 수차례 보도되었다.

44) 이 자료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지만, 최숙경이 집필한 『프라이: 한국 여성 고등교
육의 개척자』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45) 朝鮮總督府 學務局, 『朝鮮教育要覽』, 1926.

위의 표에서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것은 교원수와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로, 교원은 1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학생은 59명으로 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대학과의 경우 선교사 교원이 주류를 이룬데 반해, 이화여전에서는 한국인 교원이 과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일본인 교원이 2명 포함된 점이 큰 변화이다. 일본인 교원은 전문학교 개편 이후 강화된 일본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전문학교 인가를 신청하면서 총독부에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교원은 교수 10명, 조교수 8명, 강사 6명으로 구성되었다.⁴⁶⁾ 이 중 한국인 여성은 이은라, 김애식, 김활란의 3명으로 모두 교수였다. 반면에 강사 중에는 한국인 남성이 많았고 연희전문 교원이 겸직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국인 교원의 증가는 이화여전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선교사들과 여학생 제자들로 구성된 배타적인 집단에서, 한국인 지식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이었다.

전문학교 인가 후 이화여전은 꾸준히 학생수가 증가하였다. 다음은 1925년에서 1930년까지의 재적 학생수 추이이다. 이 통계에는 문과와 음악과뿐 아니라 유치원 교원을 양성하는 보육학교와 1929년 개설된 가사과의 학생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⁴⁷⁾

[표 5] 이화여전·보육학교 재적 학생수 추이

년도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학생수	115	120	145	131	186	201	251

46) 정충량, 『이화80년사』, 166에서 재인용.

47) *Ewha College News Sheet*, Spring Term, 1931.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1597-4-4:09.

또한 WFMS 소속 미션스쿨뿐 아니라 다른 교단의 미션스쿨과 공립학교 출신 학생들의 입학이 증가하여 ‘이화’라는 색채가 조금씩 얼어졌다. 전문학교 개편 5년 후인 1931년 5월에 작성된 출신학교별 재학생 통계를 보면, 39개 학교에서 온 184명이 재학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6]. 미션스쿨 출신이 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일반 사립과 공립학교 출신이 24%, 일본인 학교(고등여학교) 출신이 11%였다. 일본인 학교 출신 중에는 일본 소재의 학교에서 온 학생들도 포함되었다. 학생들의 종교를 보면, 감리회가 104명, 장로회가 65명으로 다수였고, 가톨릭을 포함한 기타 교단 소속이 4명, 무교로 답한 학생인 11명이었다.⁴⁸⁾

[표 6] 1931년 5월, 출신학교별 학생수

학교 유형	학교수	문과	음악과	가사과	합계
미션스쿨	11개교 (6개 교단 소속)	44	36	39	119
일반 사립학교	4개교	7	4	12	23
공립학교	5개교	6	6	10	22
일본인 학교	19개교 (6개교는 일본 소재)	4	4	12	20
합계	39개교	61	50	73	184

이화에 학생을 보낸 6개 교단은 북감리회, 남감리회, 북장로회, 남장로회, 호주장로회, 캐나다연합교회이다. 이들 중 남·북장로회를 제외한 교단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WFMS의 사업에 힘을 보태었다.⁴⁹⁾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선교사’라는 통칭으로 총

48) "Present Enrollment by Classes, 1931.05.12," Documents of the GCAH, folder 2597-4-3:10.

49) 이화100년사 편찬위원회 편, 『이화100년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182-83.

분하지만, 선교사들은 모든 사항을 철저히 교단 중심으로 구별하여 기술한다는 점이다. 선교사들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특정한 선교사에 대해 언급할 때 반드시 교단을 명시하며, 학생이나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전문학교로 전환하고 3년 후인 1928년 2월에 이화여전의 졸업생들은 사립고등보통학교 교원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⁵⁰⁾ 이를 계기로 졸업생들의 사회진출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이전처럼 이화학당 졸업생이 이화를 비롯한 WFMS 소속 미션스쿨의 교원으로 활동하는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다른 교단뿐 아니라 일반 사립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화여전 음악과는 1927년 1회 졸업생 3명(김은실, 김사라, 한만복)을 배출하였는데, 이들은 이화와 남감리회의 배화고보 등에서 음악교원으로 근무하였다.⁵¹⁾ 1927-37년까지의 졸업생 현황을 보면 음악과 졸업생은 68명으로 문과 졸업생 111명에 비해 적은 수이지만, 교원으로 재직 중인 인원은 음악과가 38명으로 문과의 27명에 비해 더 많았다.⁵²⁾ 이를 통해 당시 음악교사는 교육받은 여성에게 사회진출을 위한 유리한 통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 정충량, 『이화80년사』, 151.

51) Mary Young, "What the King did not Know," *Korea Mission Field: A Monthly Journal of Christian Progress* 34/4 (1938), 71.

52) 『梨花女子專門梨花保育一覽 (昭和十二年)』, 130-31.

〔표 7〕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졸업생 현황

직종	교원	상급학교	가정	기타	사망	합계
1927 (1회)	3	-	-	-	-	3
1928 (2회)	1	-	2	-	-	3
1929 (3회)	1	1	-	-	-	2
1930 (4회)	1	-	4	-	1	6
1931 (5회)	3	1	3	-	-	7
1932 (6회)	3	-	3	1	1	8
1933 (7회)	3	-	7	-	-	10
1934 (8회)	4	-	-	-	1	5
1935 (9회)	7	-	2	-	-	9
1936 (10회)	6	-	-	-	-	6
1937 (11회)	6	-	3	-	-	9
계	38	2	24	1	3	68

5. 나가며

WFMS의 선교기관인 이화학당은 전문학교로의 개편을 통해 일제의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로 변모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는 서양음악 유입 이후 최초로 음악 고등교육기관을 보유하게 된다. 전문학교로의 개편과 음악과의 설립은 선교기관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긴급한 물질·인적 투자가 요청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여성고등교육에 비전을 갖고 있던 WFMS의 선교사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기도 했다.

일제의 식민통치 하에서 총독부의 행정력은 미션스쿨 운영의 모든 부문을 통제하였다. 그 결과 1910년 이후 이화학당의 역사에서 발견되

는 중요한 변화의 이면에는, 늘 총독부의 요구와 이화 측의 대응이라는 상호작용이 존재하였다. 전문학교 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건물을 세우고, 기존 교원의 미국 유학을 단행한 것 역시 총독부의 인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

전문학교 인가를 취득함으로써 이화여전은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났고, 미션스쿨의 한계를 넘어 한국 유일의 여성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하였다. 교원자격증의 발급을 통해 사범학교의 기능을 겸하게 됨으로써, 일본인학교(고등여학교) 출신도 지원하는 인기 학교로 변모하였다. 더 나아가 졸업생들의 중등교원자격 취득으로, 선교사들은 총독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교원의 확보라는 어려운 숙제에서 해방되었다. 이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싼 급료를 주고 미션스쿨을 졸업한 일본인 교원을 영입하거나, 일본 또는 미국으로 졸업생들을 유학 보내는 번거로운 과정을 겪어야 했다. 이는 비단 이화학당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타 미션스쿨에도 적용되는 사안이었다. 전문학교 인가 이후 남감리회와 캐나다연합교회 등이 이화여전에 경제적인 지원을 보낸 이면에는, 이러한 편리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모든 성과를 종합할 때, 전문학교로의 개편은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션스쿨의 고유성이 손상되고 일제의 교육기관으로 변모하였다는 그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구체적인 변화상을 보면, 이화학당 ‘대학과’에서는 선교사들이 영어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화여전의 공식 언어는 일본어가 되었다. 학생 선발과정에서도 일본어 시험이 시행되었다. 또한 미션스쿨의 교육에서 핵심이 되는 성경 수업과 함께, 근대 일본의 모든 학교에서 가르친 ‘수신’ 과목이 교과과정에 추가되었다.

이처럼 WFMS와 이화의 선교사들은 전문학교 개편을 통해 선교기관의 운영 면에서 실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이는 선교지(mission field) 식민 정부의 정책에 순응한 결과였다. 다시 말해 선교사들에게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주의는 적응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일차자료

Documents of the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 the
United Methodist Archive, Drew University, Madison, NJ.

『이화학당 일람 (1920)』.

『梨花女子專門梨花保育一覽 (昭和十二年)』.

朝鮮總督府學務局. 『朝鮮教育要覽』. 1926.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Year Book of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Ewha Weekly News Sheet.

Korea Mission Field.

Morning Oregonian.

The Conservatory Bulletin of the New England Conservatory fo Music.

The Sunday Oregonian.

* 논저와 학교사

강명숙. “일제시대 학교제도의 체계화: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2/1 (2010), 1-23.

김은하. “이화학당과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중심으로 본 초기 한국 여성 작곡가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43 (2009), 47-78.

이이야마 다케시. “명치기 일본의 전문학교에 관한 연구(I):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7 (1999), 103-120.

이진원. “일제강점기 이화전문학교의 전통음악 교육에 관한 고찰.” 『한

- 국음악사학보』 44 (2010), 367-410.
- 정재철. “일제하의 고등교육.” 『한국교육문제연구』 5 (1989), 37-109.
- 채현경. “누구의 목소리인가: 서구식 음악교육과 여성의식의 변화.” 『음악과 문화』 29 (2013), 119-158.
- 최숙경. 『프라이: 한국 여성 고등교육의 개척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 최승현. “이화음악 1920년대-1930년대의 음악교육.” 『음악연구』 15/1 (1997), 211-246.
- 허지연. “이화여자전문학교 선교사 음악교사 연구: 연합감리회아카이브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음.악.학』 25 (2013), 91-123.

明倉英三郎. 『日本教育史』. 東京: 青木書店, 1974.

- 이화100년사 편찬위원회 편. 『이화100년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 정충량. 『이화80년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67.

* 기타

- E-mail from Frances Bristol, Reference Archivist, GCAH, 2015.02.13.
- E-mail from Katherine Kominis, Howard Gotlieb Archival Research Center, 2015.02.04.
- E-mail from Maryalice Perrin-Mohr, Spaulding Library, New England Conservatory, 2013.06.27.

“Chicago Training School for Home and Foreign Missions,”
http://en.wikipedia.org/wiki/Chicago_Training_School_for_Home_and_Foreign_Missions, 검색일: 2015.04.24.

“McKendree College Yearbook,”

http://www.e-yearbook.com/yearbooks/McKendree_University_McKendreean_Yearbook/1928/Page_600.html. 검색일: 2015.04.24.

“McKendree University,” <http://www.mckendree.edu>, 검색일: 2015.04.24.

“旧制女子専門學校,” <http://ja.wikipedia.org>, 검색일: 2015.02.28.

Abstract

**Music Education of Women Missionaries
in Modern Korea: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usic Department at Ewha College in 1925**

Jeeyeon Huh

American women missionarie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music teachers at the early stage of Western music in Korea. Especially, single women missionaries of WFMS were music educators at Ewha *Haktang* and produced musicians for churches and mission schools. Their education was a breakthrough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when they established the music department at Ewha College in 1925. It was the first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for music in Korea.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oundation of the music department at Ewha College, focusing on the management of the missionary institution. First, I look into the situ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relevant statutes in the 1920s when the college course at Ewha *Haktang* was reorganized into Ewha College. Second, I check the actions that Ewha missionaries took for satisfying the requirements for college status. Third, I investigate the change of the school's reputation and the careers of the graduates after Ewha was recognized as a college.

With these findings, this paper aims to call attention to the dual identity of the mission school as a missionary and educational institution. Also, it retraces the practical collaborative efforts of a missionary society in the United States and Ewha missionaries in Korea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a missionary institution.

Keywords: modern music education, woman missionary, Ewha College,
Ewha *Haktang*, mission school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5년 4월 28일	2015년 5월 4일~23일	2015년 6월 1일